



▶1면에서 이어짐

‘독립연구’는 원하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직접 설계해 능동적,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신설된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기존의 전공·교양 강좌가 포괄하지 못하는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강좌(커리큘럼, 주차별 학습·활동 계획 등)를 설계하고, 교수의 지도 아래 독자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학술·진흥위원회는 ‘세계적인 경희 학풍 조성’과 ‘세계대학평가지표(GEI) 개발’을 중요 과제로 설정해놓았다. 이문재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학풍 조성의 방식에 대해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란 융·복합 학문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개 계열을 ‘미래대학이 학문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5대 분야’로 규정, 구성하여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GEI는 ‘Global Eminence Index’의 약자로 본부 측이 개발하는 새로운 ‘세계대학평가 지표’를 말한다. “정량적 연구실적과 평판도 중심의 대학평가를 극복하고, 대학의 가치(창학이념), 공익성, 학생 중심의 교육체계 등을 중심으로 제작하게 된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국내외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기업 등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EI는 교육·실천혁신위원회에 소속한 대외협력세계참여 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기획위원회는 사무총장과 협력해 양대 위원회에 전반적인 기획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획 역할을 수행한다. 유 사무총장은 “앞으로 하나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학교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들을 생각인데, 양대 위원회가 각자 집중하는 사업과 별개로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경우에도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재정혁신지원단은 명칭 그대로 양대 위원회와 사무총장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9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합동교무위원 연찬회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실행위원회는 기존까지 교내에 존재해오던 위원회들과 가장 구별되는 조직이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은 20명 정도의 교원이 모여 일정 기간

진행한 연구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는 것이 관례였던 반면, ‘실행위원회’는 중요 사안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다. 유 사무총장은 “보고서만 내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실행한 뒤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양대 위원회에는 각각 5명의 학생 위원이 배정돼 학생 참여도 가능한 형태다. 유 사무총장은 “(학생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교육·실천 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생각하는 연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연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진흥위원회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참여 방법은 학생 대표 기구들의 추천 및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합동교무위원 연찬회가 열렸다.

## ‘정원 감축·융복합학 신설’ 가닥 잡혀

### 프라이م사업 어디까지 왔나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 지난해 11월 이후 여론을 뜨겁게 달군 프라이م사업의 사업 계획서 마감이 3월 말로 예정된 상태다. 우리 신문은 방학 중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프라이م사업 관련 이슈를 정리해봤다.

프라이م사업이 집중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2월 15일 온라인상에 ‘학문단위 재조명 및 개편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이 공개돼, 그 내용의 구체성과 근거에 대해 구성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어 가이드라인작성 배경을 두고 구성원과의 소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12월 24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프라이م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가이드라인이 본·분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후 12월 29일 교육부가 프라이م사업 최종 선정을 1개월 연기하면서 학교는 잠시의 여유를 갖게 됐다.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 간 충분한 의사결정을 장려하고자 2016년 3월 말에서 4월 말로 향후 추진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가 바뀐 2016년 1월 11일에 열린 대학 본부와와의 면담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프라이م사업 논의의 재검토와 학생 의견 개진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원점으로부터의 재논의’와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소통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

국제캠 총학 또한 대학본부와 면담을 가졌다. 국제캠 총학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문 제기에도 대학본부는 “중복학과 문제나 본·분교 문제를 심화하는 방향의 사업진행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총학과 대학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

1월 19일에는 ‘프라이م사업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돼 사업의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학본부 측은 “우리학교 장기발전 계획과 프라이م사업의 정책 방향이 잘 맞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사업 참여 계기를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은 “학과융합으로 인한 기초학문 경시를 초래할 것”이라며

프라이م사업의 어떤 부분이 우리대학의 가치와 부합하는 건지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국제캠 총학은 “양 캠퍼스 총학부터 먼저 프라이م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경희’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월 28일과 2월 3일, 2월 1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프라이م사업 소통위원회’(소통위)가 개최됐다. 1, 2차 소통위에서는 ‘신설될 융·복합학과 계획안’에 대해, 제3차 소통위에서는 ‘각 학과별 인원 감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선 두 번의 소통위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캠 총학은 이번이 학교 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제2차 소통위 당시 서울캠 정주희(사학 2012) 학생회장은 자료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는 학교 측에 “구체적인 정원변동 계획안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3차 소통위, 인원 감축 논의 진행 3월 말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

이에 대해 한균태 부총장은 “자료를 내부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다”고 했으나 확정안이 아닌 자료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융·복합학과 관련 논의에서 배포된 종합자료에 대해 정 회장은 “학교 측에서 계획을 숨기고 있지 않나”며 본부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미정원) 신상협 원장은 “종합자료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내부 논의의 결과”라며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제3차 소통위에서는 프라이م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인원 감축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양 캠퍼스별로 총 정원의 15%를 줄여 이를 신설학과에 활용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논의대로라면 서울캠에서 276명이, 국제캠에서는 266명의 정원이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캠 측은 서울캠의 정원 감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국제캠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언급했다. 미정원 측은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말 프라이م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총 두 차례의 정량평가와 마지막 최종심의를 거쳐 총 10개교 내외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 2016년 1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안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이 한층 더 늘어난 국가장학금과 함께 하세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14조 원)의 절반(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2016. 2. 25(목) 9시 ~ 3.10(목) 18시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6. 2. 25(목) 9시 ~ 3.15(화) 18시
- 신청대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가능(단, 구제 신청서 제출시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관련 문의 : 1599-2000)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 학점 미적용 재학생, 복학생 : 직전 학기 평점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단, C학점 경고제 대상자 및 장애인인 70점 이상)  
☒ **신청할 때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세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 : 미혼(부모 모두), 기혼(배우자)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방문,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동의를 가능합니다.  
· 2015년에 가구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동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 토대체 비결이 뭐야?

삼성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  
**삼성그룹 소셜 미디어!**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b>삼성블로그</b> blog.samsung.com	<b>삼성트위터</b> www.twitter.com/samsung	<b>삼성페이스북</b> www.facebook.com/samsung	<b>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b> 카카오프러스친구>검색>삼성
----------------------------------	---	---	--------------------------------------